



2009. 제4회

고급분류, 2009,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162x130cm

정정엽

1962년
전라남도 강진 출생

정정엽은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부터 거대담론과 미시담론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과 예술적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 '두렁', '갯꽃', '여성미술연구회', '임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1995년 첫 개인전 《생명을 아우르는 살림》을 열었으며, 1998년 금호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과 2000년 인사미술공간에서 열린 개인전 《붓물》 이후 붉은 팔과 곡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위지다》(아르코미술관, 2006), 《별레》(갤러리 스케이프, 2016), 《조용한 소란》(서울식물원, 2021) 등의 전시를 통해 인간과 공존하는 동식물에 대한 관심과 위기의식을 보여주었다. <집사람> 시리즈와 <얼굴풍경>, <최초의 만찬>과 같은 작업으로 꾸준히 동시대 여성들의 삶과 인물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있다.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도쿄국립근대미술관, 도쿄 / 싱가포르국립미술관, 싱가포르, 2019), 《Women In-Between: Asian Women Artists 1984-2012》(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후쿠오카, 2012),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3》(5.18 자유공원, 광주, 2022) 등 주요미술관에서 열린 다수의 기획전에 초대받아 참여했다.

'제34회 이증섭 미술상'(조선일보, 2022), '제13회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사)여성문화 네트워크, 2020), '제4회 고암미술상'(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2018)을 수상한 바 있으며 출판물로 『한국현대미술선 002 정정엽』(해사공, 2011)과 『나의 작업실 변천사』(해사공, 2018)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아르코미술관, 경기도미술관,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총괄기획: 강성은
연구원: 김윤정
아카비스트: 박지혜
디자인: 인현진
발행처: 미디어버스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먼장갑, 1987, 목판화, 34×27cm

1980년대 목판화

작가 정정업은 대학 졸업 후 미술 동인 '두렁'의 일원으로 인천의 한 공장에 취업하여 노동자들을 돕는 현장 지원 활동을 하였다. <먼장갑>은 점심시간 공장 빨랫줄에 널려 있던 먼장갑을 목판화로 제작한 작품이다. 작가는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간섭이 없는 날을 즐겨워하거나 규찰을 서는 여성 노동자들, 박노해 시에 그림을 더한 <이불을 꿰매며> 등 1987년부터 92년까지 총 17점의 목판화를 제작하였다. 이 시기에 제작한 목판화들은 민중 미술 현장 지원의 성격을 띠 뿐 아니라 작가의 개인적인 삶도 기록하고 있다. 결혼, 출산, 육아 등 개인 신상의 변화가 반영된 <아빠와 함께>, <나물 캐기> 등의 작품, 가장 격변기였던 당시 그룹 활동과 작업 등으로 지리산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과 홀로 산행하고 싶은 맘을 달래며 제작한 작품도 있다. 민주화의 거대 담론을 선언적으로 표현하는 남성 작가들과 달리 정정업의 목판화는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몰려든 나이 어린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담담하고 섬세하게 보여 준다.



썩1, 2015,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162×130cm

1990년대 이후 비인간 생명체 회화 작품

문이 반쯤 열린 공간 안에 기괴한 외계 생명체가 놓여 있다. 툭툭 불거져 나온 촉수가 주름진 몸 여기저기에서 돌아나 있다. 자세히 보면 썩이 난 감자가 공간을 가득 차지하고 있고 푸른 벽에는 나방들이 붙어 있다. 그리고 문 밖에는 멀리 한 여성이 서 있다. 이 여성이 서 있는 곳은 전시장 혹은 가정의 밖 사회이다. 정정업은 전시장이나 DDP처럼 공적 공간들에 썩이 난 거대한 감자를 그려 정제된 공간을 그로테스크한 장소로 바꾼다. 같은 공간에 그려진 여성 인물들은 썩의 존재를 등지거나 멀리 떨어져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썩 1>(2015)은 밤상에 올라오는 반찬으로서의 쓸모를 잃고 그로테스크한 생명력으로 자신을 가시화하는 주체적 생명으로서 썩 난 감자를 보여 준다. 살림의 시기를 놓쳐 썩이 나고 독이 오른 감자는 이제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의 효용이 감소하는 자리에 돌아난 썩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생명을 예고하고 있다. 썩 난 감자는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감자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가정 내에서 노동하는 여성 인물

1980년대의 전반을 노동운동과 사회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많은 20대 여성들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30대가 되었다. <집사람 I>(1991)은 취업광고판 아래에서 둘째 아이를 업은 채 첫째 아이의 손을 잡고 구인구직란을 보고 있는 한 여성 노동자를 그린다. 그림 속 여성은 임금 노동을 뒷받침하는 그림자 노동을 하고 있는 동시에 저임금 노동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이처럼 가부장제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는 여성의 모습은 <식사 준비>(1995)로 이어지고 가정 내 여성의 내면을 탐구한 <집사람>(2000-2008)의 드로잉 설치 작업으로 이어진다. 1980년대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들이 노동 현장에서 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이었던, 1990년대 이후 작품 속 여성들은 일상의 재생산/돌봄 노동과 임금 노동 사이에서 분투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 시기 작가는 '더', '갯꽃', '여성미술연구회' 등 소그룹 운동을 병행하며 당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되어 이중의 노동을 하고 있는 가정 내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그렸다.



집사람I, 1991, 캔버스에 유채, 116.5×91cm



최초의 만찬2,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50×100cm.

2000년대 후반 이후 사회 속에서 연대하는 여성 인물

<최초의 만찬>(2019)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 12명의 여성 인물들을 그린 작품이다. 사회적인 유병세, 작가와의 친분 관계, 생사와 무관한 인물들이 공존하여 작품 내 인물 간의 위계를 해제하고 있다.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기존 작품들에서 보아 온 백인/엘리트/유명 여성이 아닌, 오직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여성들을 보여 준다. 작가는 이 여성들을 조건 없는 환대의 장소로 초대한다. 정정업은 장애인 활동가 고(故) 최옥란, 위안부 피해자 고(故) 심미자 할머니처럼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이내 지워지고 사라졌던 여성들을 화폭에 소환하여 생명을 부여한다. 붉은 색으로 그려진 이 여성들은 이제 길 위에서 되살아나 가부장제의 제도적 유령을 몰아내는 벽사로 기능하게 된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정정업은 각기 다른 분야의 여성 미술가 일곱 명과 함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그룹 '입김'으로 활동하였다. 개인 작업을 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동 창작을 허용하는 연대였던 '입김' 활동은 <최초의 만찬>에서 연대하는 여성 인물 작업으로 스며들었다.



흐르는 대지, 1997, 캔버스에 유채, 180×140cm

곡식 시리즈

큰 화폭에 거대한 팔이 넘쳐흐른다.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줄어들어 흰 여백을 보이다가 끊어질 듯 이어져 팔 한 알 한 알이 피처럼 번져 있다. <흐르는 대지>(1997)는 1990년대 초반 노동하는 여성의 눈에 포착된 대상으로서 곡식 그림이 발전한 것으로, 팔을 무수히 그려 작은 존재들의 집적이 이룬 힘을 보여 준다. 곡식 시리즈는 소재뿐 아니라 제작 방식에 있어서도 '여성'이라는 조건을 의식하며 제작된다. 작가가 팔 한 알 한 알을 수행적으로 쌓아올렸다는 점에서 소재와 제작 방식이 여성의 반복적인 노동과 닮았다. 초기에 살림의 장소나 여성의 신체에서 그로테스크하게 비어져 나오던 곡식 작업들은 점차 구상에서 추상으로 변한다. 곡식들은 씨앗이자 열매이다. 한 알 속에 생명의 시작과 끝이 함께 들어 있기에 근원적인 이야기이다. 곡식 시리즈의 작품 속에는 수많은 알곡으로서 개인의 이야기가 중첩된다. 수많은 점이 모여 선과 면이 되듯이 한 알 한 알의 곡식들은 이후 <춧불 콩>(2016-2017)과 <광장>(2017)에서 광장을 점거한 개인 주체들이 된다.

퍼포먼스

2011년 12월 14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1,000차 수요집회에서 정정업은 분홍색 한복 치마를 머리에 둘렀다. 길원옥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 중 한 글귀를 검은색 천에 색실로 수놓아 목에 걸었다. 장옷은 한국 여성들이 외출할 때 썼던 쓰개치마이다. 집 밖을 나갈 때 장옷을 써야 했던 과거는 익명으로 살아야 했던 여성의 현실을 보여 준다. 분홍색 장옷을 쓴 작가는 과거 제국주의의 반성 없는 폭력과 가부장적 사회 제도에 희생된 한국 여성들의 삶을 침묵으로 증언한다. 1인 시위 형식의 퍼포먼스에 쓰인 분홍색 쓰개치마는 <아방궁 종묘점거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전주씨종친회의 방해로 무산되고 3년여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때 길개로 쓰였던 분홍색 쓰개치마는 이후 <남미 액션 프로젝트>(2008), <일본군 위안부 1,000차 수요집회시 퍼포먼스>(2011), 탈핵 퍼포먼스 <해몽>(2018)등 예술행동으로서 등 활동가로서의 작업에 지속적으로 활용된다.



일본군 위안부 1,000차 수요집회시 1인 퍼포먼스, 2011